

스모선수 후타바야마

우사는 요코즈나라는 가장 높은 지위에 도달한 프로 스모선수 후타바야마(1912~1968)의 고향입니다. 그의 가장 걸출한 업적은 69연승을 달성한 것으로 이 기록은 지금도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타바야마는 약 20년 동안 눈부신 성과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 총 12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27년 15세의 나이로 다쓰나미방(프로 스모선수는 반드시 공인 감독이 이끄는 방에 소속되어야 함)에 들어간 후 약 10년간 지위의 상승을 거듭한 후타바야마는 하위 지위였던 무렵에도 요코즈나를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유명한 연승 행렬은 1936년부터 3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후타바야마는 1936년 오제키라는 이름의 두 번째로 높은 지위를 획득했고, 1937년에는 제35대 요코즈나에 등극했습니다. 이듬해 요코즈나로의 진급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우사 신궁에서 개최되자, 후타바야마는 조구(上宮, 위쪽 신사)의 제신 앞에서 상징적인 도효이리(씨름판에 들어설 때 행하는 의식)를 선보였습니다.

1945년 후타바야마가 은퇴한 후에서야 그가 어린 시절에 스모선수로서 불리할 수 있는 2곳에 핸디캡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으며, 가업이었던 어업을 돕다가 생긴 상처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일부가 뭉개진 상태였습니다. 후타바야마가 이러한 역경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경력은 더욱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역을 은퇴한 후에는 자신이 만든 스모방의 감독으로서 스모선수를 지도했고 1957년부터 사망한 1968년까지 일본스모협회의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1999년에는 복원된 그의 생가 근처에 ‘후타바의 고향’이라는 소규모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에는 후타바야마의 생애와 경력에 관한 상세한 연표와 시합 비디오 영상, 요코즈나 정장 차림의 거대한 후타바야마 동상, 화려한 자수가 놓인 게쇼마와시(자수가 들어간 큰 앞치마 모양의 비단 천으로 시합 전 의식에 사용됨), 다수의 사진과 자료, 그의 개인물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명은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풍부한 시각 자료를 통해 우사가 낳은 유명 요코즈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